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6. 10.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우리 함께 기도해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약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홍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코러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0장 14~24절

다 같이

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 나눔 다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인 도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동원합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바탕의 ‘합환채 소동’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과 자녀라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심리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위적인 수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교차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인간의 꾀나 세상의 ‘합환채’가 아니라, 오직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는 라헬의 어리석음

본문 14~15절 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당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합환채(Mandrakes)’는 미신적으로 수태를 가능하게 해 주는 최음제나 비방으로 여겨졌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구하기 보다, 조카 르우벤이 가져온 합환채라는 ‘물질적, 인간적 수단’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그 합환채를 얻기 위해 남편과 동침할 권리까지 언니에게 팔아넘기는 영적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라헬의 ‘합환채’가 원치 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재물만 있으면, 이 인맥만 있으면, 이 세상적인 방법만 통하면 내 인생의 막힌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믿는 초조함이 바로 합환채입니다. 세상의 수단은 잠시 위안을 줄지 몰라도 결코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본문 17~18절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역설적이게도 합환채를 얻은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고, 합환채를 빼앗기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해 외로이 지내던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임신은 합환채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레아 역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 18절에 인간적인 해석(내 시녀를 준 값을 주셨다)을 덧붙이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레아의 연약함과 소외감을 신원(伸冤)하시고 연약 백성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음”에 주목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고 소외당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위적인 조건을 다 갖춘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22~24절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기억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이 합환채를 의지했던 인간적 수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바로 구속사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게 될 ‘요셉’입니다.

요셉의 출생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구속 역사의 전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때(Time)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결과임을 입증합니다. 라헬은 그제야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분은 세상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종 내 인생의 기도는 이토록 더디 응답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합한채가 완전히 내려놓아지기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찬양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 나는 지금 어떤 '합환체'를 붙잡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중 보 기 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 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많은 사역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의 합환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